



2021. 8. 19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25호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 (삶의 질 그룹장)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1. 8. 19

Vol. 25

ISSN	2733-8258
발행일	2021년 8월 19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격주 1회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로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삶의 질 그룹장 민보경

요약

I. 서론 : 행복과 정주여건

II. 연구설계 : 변수구성 및 측정

III. 분석결과 : 지역 특성과 도시와 비도시의 행복 영향요인

IV. 행복 제고 전략을 위한 시사점

참고문헌

- 행복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행복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다차원성을 파악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 틀 필요
-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생활여건 만족도를 검토하고, 지역적 관점에서 도시와 비도시 지역간 행복요인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분석을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의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15세 이상 전국 남녀 대상, 표본 수 13,824명)를 활용하였으며,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응답자의 거주 지역을 통계청 기준에 근거하여 행정구역에 따른 도시와 비도시로 구분하여 분류
- 전체 응답자들의 거주지역 생활여건 만족도(5점 척도)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건강(3.70점)이 가장 높았으며, 안전(3.50점), 환경(3.44점), 관계 및 사회참여(3.43점), 교육(3.43점), 여가(3.40점), 경제(3.31점) 순으로 지역 생활여건의 만족도 평가
- 응답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생활 만족도, 생활수준 만족도, 여가시간 만족도,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 등의 개인 수준에서의 만족감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족생활 만족도가 행복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도시 지역에서는 생활여건 중에서도 건강과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도시 지역의 경우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 행복 제고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일관된 정책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여건과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 중심의 행복 제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사점 도출

I. 서론: 행복과 정주여건

□ 행복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통된 정책목표로 행복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필요성 증가

- 행복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영역을 관장하는 지방정부와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
 - 최근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 목표가 양적 성장 중심에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 필요성 증가

□ 행복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다차원성을 파악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 틀이 필요

-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주관적인 시각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구분되며 (문유정·이명신, 2021), 행복의 측정 역시 주관적인 방식과 객관적인 방식으로 구분(변미리 외, 2014; 한준 외, 2014; 황명진·심수진, 2008)
 - 객관적인 방식은 삶의 다양한 물리적 구성요소, 즉, 의식주, 건강, 연령, 소득, 교육, 보건, 그리고 여가와 같은 객관적 지표를 통해 파악되는 삶의 물질적 조건을 의미
 - 주관적 방식은 삶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등 개인의 평가 및 인식을 포함

□ 지역적 차이에 따른 행복격차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도시와 비도시 지역간의 행복요인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 필요

- 오랜기간 동안 진행된 농산어촌 지역의 청년층의 도시로의 탈출, 급속한 고령화 현상 등 지방 소멸을 우려할 만큼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도시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여건과도 맞물리는 것으로 판단
 - 특히 농산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각종 생활인프라와 공공서비스에의 접근성이 낮아 정주여건의 질이 높지 않은 상황
 -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간의 정주여건이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필요성 증가

□ 본 연구는 생활여건 실태와 만족도를 검토하고, 지역적 관점에 따라 도시와 비도시 지역간 행복요인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본 연구는 누스바움(Nussbaum)의 역량접근법을 토대로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구성하고, 한국인의 행복조사 설문을 통해 수집된 개인의 만족감, 행복감 등 주관적, 심리적 측면과 전국 시·군·구 단위 공공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행복과 관련 있는 생활 및 사회 제반 환경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 행복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함
- 특히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도농간 행복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II. 연구설계 : 변수구성 및 측정

□ 행복 영역 구성 및 측정방법

- 역량 이론에 근거한 행복 영역 설정
 -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국민행복지표 체계를 도출하기 위해 누스바움(Nussbaum)의 역량 이론에 근거하여 지역 역량(regional capability) 개념 구축
 - 누스바움이 말하는 ‘역량’은 한 사람이 타고난 능력과 재능인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조합이 만들어 내는 자유와 기회(Nussbaum, 2015)이며, 역량은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제반 여건들이 더해진 개념으로 확장
 - 누스바움은 국가가 최저 수준을 보장해야 할 기본 역량으로 생명, 신체 건강, 신체 보전, 상상과 사유, 감정, 이성, 관계, 자연 동화, 유희, 환경 통제 등 10가지를 제시
 -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은 삶의 질의 평가 기준에 대한 최저 기준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김연미, 2019), 본 연구는 누스바움의 기본 역량 개념을 중심으로 UN과 OECD의 행복 구성 영역 및 지표를 종합 검토하여 행복의 하위 영역으로 7가지 영역으로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 참여’, ‘여가’를 제시¹⁾(표1)

1) 국회미래연구원(2019)의 「한국인의 행복연구」는 누스바움의 10개 기본역량 영역을 건강(누스바움 리스트의 생명과 신체 건강 영역 통합), 안전(신체보전), 환경(자연동화), 경제(환경 통제 영역 중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부의 축적, 공정한 기회 등), 교육(상상과 사유, 감정, 이성 포괄), 관계 및 사회참여(관계와 환경 통제 가운데 정치 관련 영역), 여가(유희 영역) 등으로 재구성

- 또한, 주관적 만족감은 행복을 구성하는 심리적·정서적 기본요소이므로,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삶의 역량을 중심으로 지표 체계를 구성하되 주관적 만족감을 행복의 구성요소에 포함
 - 본 연구의 행복측정을 위한 틀은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 참여, 여가, 삶의 만족도 등 총 8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영역별 주관적 만족감이 전반적 행복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함(표 2)
 - 주요 설명변수(독립변수)로는 개인 수준의 만족감과 거주 지역의 생활여건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으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로는 전반적 행복감으로 설정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가구소득, 학력)을 통제변수로 설정(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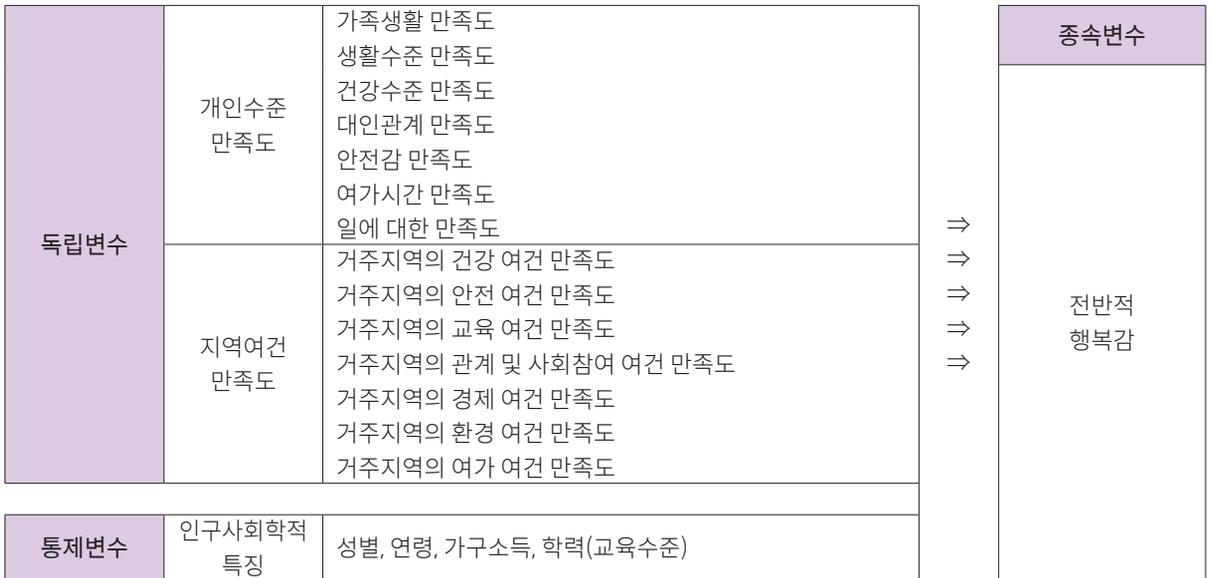
<표 1> 행복 영역 비교

국회미래연구원 행복지표	OECD, Better Life Index	통계청, 삶의 질 지표	보건사회연구원 행복 지수
(8개 영역)	(11개 영역)	(11개 영역)	(7개 영역)
건강	건강	건강	건강
안전	안전	안전	
환경	환경	환경	주거와 환경의 질
경제	소득	소득/소비/자산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일자리	고용/임금	일
교육	교육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공동체	가족/공동체	관계
	시민 참여	시민 참여	
여가	일과 삶의 균형	여가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	주관적 웰빙	삶의 가치와 목표
	주거	주거	
			거버넌스의 질

<표 2> 본 연구의 행복 영역 및 측정변수 설명

행복 영역	설명	변수	
		개인	지역
건강	신체 건강 유지, 건강한 삶 영위	건강수준 만족	지역사회의 건강 생활여건 만족
안전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유와 권리 확보	안전감 만족	지역사회의 안전 생활여건 만족
환경	자연환경의 교감과 공존	-	지역사회의 환경 생활여건 만족
경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부의 축적, 공정한 기회	가구소득, 생활수준 만족,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	지역사회의 경제 생활여건 만족
교육	이성적 사고, 원하는 것을 배우고 학습	교육수준	지역사회의 교육 생활여건 만족
관계 및 사회참여	신뢰받고 존중받으며 타인과의 상호작용	대인관계 만족	지역사회의 관계 및 사회참여 생활여건 만족
여가	문화적 삶 향유, 즐거운 삶	여가시간 만족	지역사회의 여가 생활여건 만족

<그림 1> 연구모형 요약



Ⅲ. 분석결과 : 지역 특성과 도시와 비도시의 행복 영향요인

□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의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은 15세 이상 남녀이며, 조사 완료된 표본 수는 13,824명
- 본 연구는 거주지역에 따른 행복 영향요인을 검토하고자 도시와 비도시 지역 간의 행복의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 기준에 근거하여 행정구역에 따른 도시와 비도시로 구분
 - 통계청은 행정구역의 읍·면·동 기준으로 ‘읍’, ‘동’ 지역을 도시로, ‘면’ 지역을 농촌으로 산정²⁾
 - 응답자의 거주 지역이 읍과 동인 경우 도시 지역으로, 면인 경우 비도시 지역으로 분류하여 지역별 행복 영향요인 분석

<표 3> 연구대상 표본의 지역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도시	비도시
		빈도(%)	빈도(%)
성별	남성	6,095(47.4%)	445(46.6%)
	여성	6,775(52.6%)	509(53.4%)
연령	10대	452(3.5%)	19(2.0%)
	20대	1,462(11.4%)	88(9.2%)
	30대	2,004(15.6%)	115(12.1%)
	40대	2,297(17.8%)	125(13.1%)
	50대	3,258(25.3%)	229(24.0%)
	60대이상	3,407(26.4%)	378(39.6%)
가구소득 (월평균)	소득없음	175(1.4%)	20(2.1%)
	200만원미만	1,175(9.1%)	169(17.7%)
	200-300미만	1,744(13.5%)	22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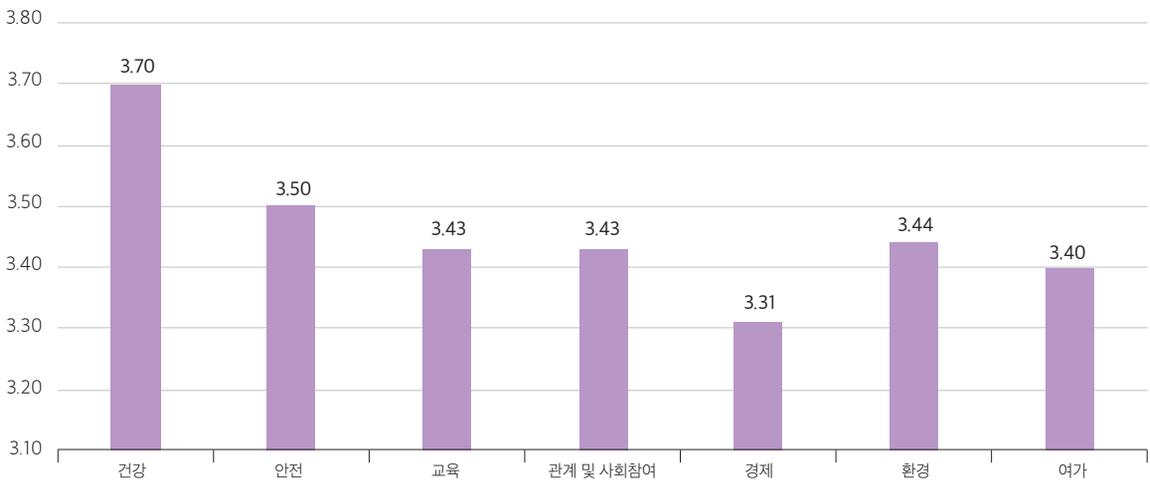
2) e-나라지표에 따르면, 도시와 비도시 지역을 구분할 때 1.용도지역 기준(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비도시지역: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2.행정구역 기준(도시지역: 읍·동, 농촌: 면)을 사용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행정구역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행정구역상 읍·면·동은 도시화 여부에 따라 명칭이 부여되며, 면이 도시의 형태(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내 거주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 내 거주자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를 갖추고 인구 2만명 이상이면 읍으로 승격

변수	구분	도시	비도시
		빈도(%)	빈도(%)
가구소득 (월평균)	300-400만원 미만	2,723(21.2%)	180(18.9%)
	400-500만원 미만	2,319(18.0%)	124(13.0%)
	500-600만원 미만	1,811(14.1%)	120(12.6%)
	600만원 이상	2,923(22.7%)	112(11.7%)
학력	중졸이하	1,285(9.9%)	176(18.4%)
	고졸	4,521(35.1%)	391(41.0%)
	대졸(대재 포함)	6,909(53.7%)	385(40.4%)
	대학원 재학 이상	90(0.7%)	2(0.2%)
합계		12,870(100%)	954(100%)

□ 생활여건 만족도

- 전체 응답자들의 거주지역 생활여건 만족도(5점 척도)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건강(3.70점)이 가장 높았으며, 안전(3.50점), 환경(3.44점), 관계 및 사회참여(3.43점), 교육(3.43점), 여가(3.40점), 경제(3.31점) 순으로 지역 생활여건의 만족도 평가

<그림 2> 생활여건 만족도(전국 평균)



□ 도시와 비도시 지역에 따른 행복요인의 차이

- 도시와 비도시 거주민의 행복감과 만족감 차이분석(t검정) 결과, 전반적 행복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부 만족감의 경우 도시 거주민이 비도시 거주민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냄

- 개인 수준 만족도의 경우 생활 수준 만족도, 건강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가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고, 지역 수준 만족도의 경우, 안전여건 만족도, 교육여건 만족도, 경제여건 만족도 등이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남

<표 4> 만족감과 행복감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차이 분석

변수	전체평균 (N=13,824)	표준편차 (N=13,824)	도시 (N=12,870)	비도시 (N=954)	t	p
전반적 행복감	6.83	1.264	6.83	6.78	.966	.334
가족생활만족도	5.81	.781	5.81	5.86	-1.693	.091
생활수준만족도	6.42	1.498	6.44	6.18	4.614***	.000
건강만족도	6.68	1.788	6.70	6.34	5.453***	.000
대인관계만족도	6.68	1.647	6.69	6.52	2.784**	.005
안전감만족도	6.53	1.616	6.53	6.46	1.209	.227
여가시간만족도	6.45	1.665	6.45	6.54	-1.538	.124
일에 대한만족도	7.31	1.223	7.30	7.33	-.412	.680
지역 건강여건 만족도	3.70	.831	3.71	3.66	1.419	.156
지역 안전여건 만족도	3.50	.886	3.51	3.41	2.963**	.003
지역 교육여건 만족도	3.43	.884	3.43	3.32	3.537***	.000
지역 관계 및 사회참여여건 만족도	3.43	.880	3.42	3.44	-.436	.663
지역 경제여건 만족도	3.31	.867	3.32	3.25	2.117*	.034
지역 환경여건 만족도	3.44	.844	3.44	3.43	.474	.635
지역 여가여건 만족도	3.40	.814	3.40	3.37	1.016	.310

*p<.05, **p<.01, ***p<.001

- 응답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수준 영향과 지역수준 영향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실시
 - 모델1은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기본모델로서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비도시 지역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졌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냄
 - 모델2는 개인만족도 모델로서 도시 지역에서는 대체로 모든 영역의 요인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도시 지역에서는 가족생활 만족도,

- 생활수준 만족도, 여가시간 만족도,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 등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족생활 만족도는 도시와 비도시 지역 모두 행복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 모델3은 지역만족도 모델로서 도시 지역에서는 건강, 안전, 관계 및 사회참여, 경제, 여가에 관한 지역여건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비도시 지역에서는 건강, 교육, 경제, 여가에 관한 지역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높은 경향을 나타냄
 - 모델4는 통제변수, 개인 수준의 만족 변수, 지역 수준의 만족 변수 등을 포함하는 모델로 개인 수준의 만족 변수 외에 지역 수준 변수로 도시 지역에서는 건강, 교육, 환경, 여가 변수가, 비도시 지역에서는 경제변수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그 영향력은 크지 않았음
- 도시 지역에서는 생활여건 관련하여 건강과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 지역의 경우 개인의 일반적 특성인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델1은 연령($\beta = -.053, p < .001$)과 학력($\beta = .125, p < .001$)이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나 설명력이 낮았음(Adjusted $R^2 = 0.023$)
 - 개인 수준의 만족도 모델인 모델2에서는 개인의 만족감 요인이 변수로 투입되면서 설명력은 34.9%로 증가하였고, 가족생활, 생활 수준, 건강, 대인관계, 안전감, 여가시간, 일에 대한 만족감이 행복감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남
 - 지역 수준 만족도 모델인 모델3에서는 건강, 안전, 관계 및 사회참여, 경제, 여가 여건에 대한 만족감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교육여건의 경우 다른 만족도와는 다르게 행복감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향력이 크지는 않음($\beta = -.021, p < .05$)
 -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의 요인을 포함한 통합모델인 모델4에서는 개인 만족감과 지역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감 요인이 변수로 투입되면서 설명력은 35.4%로 증가하였으며, 지역의 건강 여건과 여가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지역의 환경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비도시 지역의 경우,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비도시 지역의 모델1은 연령($\beta = -.185, p < .001$), 가구소득($\beta = .145, p < .001$), 학력($\beta = -.114, p < .01$)이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델2에서는 개인 수준의 만족도 변인이 추가되어 설명력이 37.9%로 증가하였으며, 가족생활, 생활 수준, 여가시간, 일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모델3은 지역 수준 만족도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며 건강, 교육, 경제, 여가 여건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에 높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 모델4에서는 개인의 만족감과 지역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감 요인이 투입되면서 39.4%로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경제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경향을 보임($\beta = .104, p < .01$)
- 도시와 비도시 지역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
- 통합모델인 모델4를 중심으로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지표를 비교해 보면 먼저, 통제변수로는 가구소득(도시: $\beta = -.066, p < .001$, 비도시: $\beta = .008$)과 학력(도시: $\beta = .047, p < .001$, 비도시: $\beta = -.048$)이 차이가 나타나 도시에서는 학력은 행복감에 정(+)의 방향으로, 가구소득은 행복감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영향력은 크지 않았음
 - 개인만족도 영역에서는 가족생활과 생활수준, 여가시간이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 모두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지표로 나타났으며, 건강, 대인관계, 안전감 등은 도시지역에서는 유의미했지만 그 크기는 크지 않음
 - 지역만족도 부문에서 건강 여건은 도시 지역에서의 유의미하고 설명력이 높은 변수로 분석되었지만 비도시 지역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경제여건은 비도시 지역에서 유의미하고 설명력 높은 변수로 분석되어, 비도시 지역의 낮은 소득수준이나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기타 교육, 환경, 여가 등은 도시 지역에서 유의미한 지표로 분석되었으나 설명력이 크지 않음
- 통제변수 중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은 설명력의 크기는 작지만 도시와 비도시 지역 주민의 행복감에 주는 영향의 방향성이 서로 달랐는데, 도시 지역 사람들의 소득수준은 행복감에 부(-)의 영향을 비도시 지역은 정(+)의 영향을, 학력 수준은 도시 지역에서는 정(+)의 방향으로, 반대로 비도시 지역은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수는 개인이나 지역 차원의 변수들과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후속 연구로 변수들간 상호작용의 효과 확인 필요

<표 4> 만족감과 행복감의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차이 분석

변수		도시				비도시			
		모델1 b(β)	모델2 b(β)	모델3 b(β)	모델4 b(β)	모델1 b(β)	모델2 b(β)	모델3 b(β)	모델4 b(β)
통제 변수	성별	-.003(-.001)	.018(.007)	.000(.000)	.018(.007)	-.046(-.018)	-.065(-.025)	-.051(-.020)	-.078(-.030)
	연령	-.004(-.053)***	-.001(-.014)	-.002(-.024)*	.000(-.006)	-.014(-.185)***	-.005(-.064)	-.013(-.171)***	-.006(-.078)*
	가구 소득	.007(.015)	-.031(-.064)***	-.017(-.035)***	-.032(-.066)***	.087(.145)***	.010(.017)	.021(.036)	.005(.008)
	학력	.125(.011)***	.053(.049)***	.086(.081)***	.050(.047)***	-.113(-.114)**	-.059(-.060)	-.089(-.089)*	-.047(-.048)
개인 만족도	가족 생활		.364(.231)***		.363(.230)***		.532(.327)***		.564(.347)***
	생활 수준		.129(.153)***		.120(.141)***		.134(.169)***		.113(.142)***
개인 만족도	건강		.054(.076)***		.042(.059)***		.046(.070)		.006(.008)
	대인 관계		.025(.032)**		.026(.033)**		-.019(-.026)		-.038(-.054)
	안전감		.092(.117)***		.091(.116)***		.042(.056)		.036(.048)
	여가 시간		.105(.138)***		.097(.128)***		.127(.166)***		.101(.132)**
	일		.020(.039)***		.020(.039)***		.060(.111)***		.051(.095)**
지역 만족도	건강			.289(.189)***	.117(.077)***			.190(.132)***	.012(.009)
	안전			.084(.058)***	.002(.002)			.003(.002)	.016(.012)
	교육			-.030(-.021)*	-.027(-.019)*			.129(.090)*	.074(.052)
	관계/ 사회참여			.082(.056)***	.018(.013)			.069(.056)	.045(.036)
	경제			.056(.038)***	-.010(-.066)			.223(.167)***	.139(.104)**
지역 만족도	환경			-.028(-.019)	-.055(-.037)***			-.096(-.069)	-.076(-.054)
	여가			.204(.131)***	.061(.039)***			.220(.153)**	.097(.067)
상수		6.483	1.927	4.360	1.711	7.425	1.442	5.122	1.077
Adjusted R ²		.023	.349	.128	.354	.040	.379	.199	.394
F		77.122***	919.826***	172.969***	393.209***	10.878***	75.013***	22.490***	35.475***

*p<.05, **p<.01, ***p<.001

IV. 행복 제고 전략을 위한 시사점

-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행복을 객관적인 요인과 주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거주 지역을 도시와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행복요인을 비교 분석
 - 도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읍과 동 지역을, 비도시 지역은 면 지역으로 구분하여 행복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

□ 증가하는 인구리스크에 대응하는 지역 행복 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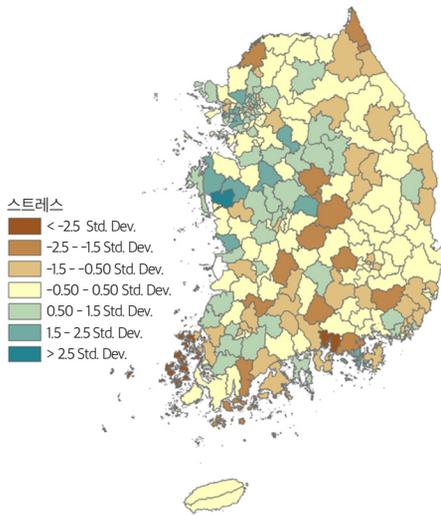
- 최근 정부는 인구지진(age-quak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인구의 자연감소, 초고령화, 지방소멸 등을 인구리스크로 언급하고, 사회경제적 충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주문
 -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진행 중이며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대응은 선제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더욱이 비수도권의 농산어촌 지역이 경험하고 있는 젊은 층의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생활여건 악화의 악순환의 고리는 생활만족도와 행복의 질을 낮추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
 - 비도시 지역 거주민의 행복감을 분석한 결과, 도시 지역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비도시 지역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지거나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비도시 지역에서의 고학력 수준의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나 도시의 어메니티(amenity)를 위한 서비스 등의 부족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 필요
 - 인구감소와 관련된 출산, 전출입이동 등의 이슈는 개인의 선택과 결정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질 제고 전략,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 마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주거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 전략과 인구 정책 연계 가능
- 행복지표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정주여건은 지역주민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인프라이자 공공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

- 인구감소는 지역경제 침체와 이에 따른 지역의 생활서비스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공급 필요
- 다른 한편, 최근의 초광역권과 같은 대도시와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농산어촌 지역 간의 연계와 네트워크 개념과 같이 생활권 단위에서 생활인프라와 지역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공급을 검토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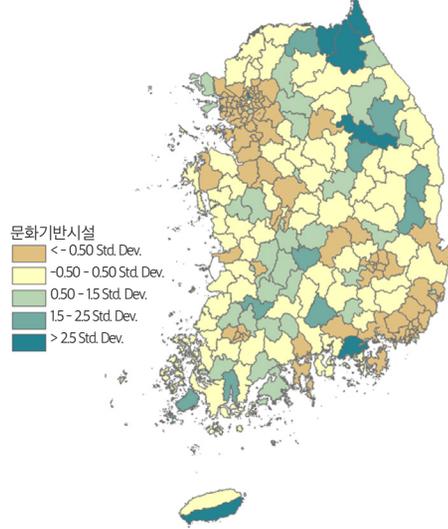
□ 국민 행복감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필요

- 지역주민의 주관적 만족도와 행복감을 분석한 결과, 도시 지역에서는 건강과 여가에 대한 생활여건 만족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비도시 지역에서는 지역의 경제여건 만족도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행복감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 지역에서는 건강과 여가 관련 생활인프라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비도시에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음
- 가령 건강 관련하여 객관적 지표인 스트레스 인지율 통계자료 살펴보면,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은 지역은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이므로 대도시 지역에서는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신 건강 프로그램 제공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여가시설 관련하여 인구십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자료를 살펴보면, 인구가 밀집한 서울, 경기 지역과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도시 지역에서 여가와 관련된 제반여건이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점으로 볼 때 도시 지역에서의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종합하면, 국가 차원에서의 일관된 정책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별, 지자체별 실정을 고려하여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적극적인 제공을 통해 각 지역에 맞는 지역 중심의 행복 제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그림 3> 스트레스 인지율(2019)



<그림 4> 인구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2019)



□ 지역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행복연구의 필요성

- 지역주민의 만족감, 행복감 등 주관적 웰빙에 관한 측정과 함께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의 실태 및 정주여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 행복지표는 지역의 정주여건과 주관적 만족감 등으로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목표지표로 활용 가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표의 측정을 통한 지역의 행복 모니터링의 필요성 확인
 - 특히 지표 값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시계열적 지표 분석 필요

- 지역의 행복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지역 단위의 다양한 정성적, 정량적 통계자료를 활용하며, 지표의 해석에 유의해야 함
 - 인구와 같이 양적 지표값만으로는 정책 결정에 제한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의 정성적 지표에 대한 보완 필요
 - 예를 들면, 인구규모가 가지는 지표값의 한계로 생활인프라와 공공시설 등은 인구수에 대응하여 공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에 대한 고려 필요
 - 지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가령 과거 1인당 교원 수는 낮을수록 바람직한 지표로 해석되었으나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지역위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시대에 따른 새로운 지표 발굴 및 지표에 대한 새로운 해석 검토 바람직

- 지금까지의 행복 연구는 세대별 인구나 인구의 연령, 성별, 학력, 소득 등 사회경제학적 관점에 치중된 경향을 보였으나, 지역은 인간의 실질적인 삶을 영위하는 밀접한 변수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지역의 정주여건과 그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 필요

참고문헌

- 국회미래연구원(2019) 한국인의 행복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김연미(2019) -누스바움의 역량접근과 정의-,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통권 61집, pp.73-107
- 누스바움(Nussbaum, M.C) (2015), 『역량의 창조 (한상연 역)』 돌베개
- 문유정-이명신(2021) 경제자본이 중년기 성인의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과 인적자본의 단일 매개효과 및 이중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7(1): 243-273
- 변미리-김범식-박희석-박민진(2014) 행복영향평가를 통한 국민행복제고방안, 지역발전위원회
- 한준-김석호-하상응-신인철(2014)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과 삶의 만족, <한국사회학> 48(5): 1-24
- 황명진-심수진(2008) 한국의 행복지수 개발, <조사연구> 9(3): 93-117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1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가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0.8.20
2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혁신성장 그룹장)	2020.9.3
3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9.17
4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거버넌스 그룹장)	2020.10.15
5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0.11.12
6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혁신성장 그룹장) 정영훈(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11.19
7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0.11.26
8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0.12.10
9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혁신성장 그룹장)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0.12.24
10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삶의질 그룹장)	2021.1.7
1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1
12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2.18
13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3.4
14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1.3.18
15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4.1
16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1.4.15
17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4.29
18	일하는 국회의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5.13
19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5.27
20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언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1.6.10
21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2021.6.24
22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살률	박상훈(거버넌스 그룹장) 외	2021.7.8
23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석 사례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1.7.22
24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8.5
25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삶의 질 그룹장)	2021.8.19

· 이 자료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
www.nafi.re.kr (미래연구-미래보고서-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